

KREI리porter 7월 강원지회 간담회 결과

1. 회의 개요

- 목 적: 신금영 회원 농가 ‘춘천 방울토마토&토마토 수출작목반’ 견학, 농촌관광 선진지 견학,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일 시: 2019년 7월 29일(월) ~ 7월 30일(화)
- 장 소: 강원 춘천시
- 참 석: 총 9명
 - 강원지회 리porter(9명): 송인숙, 최무열, 심호섭, 박수정, 유영조, 이진수, 신금영, 최학지, 박현근
- 주요 일정

	시 간	분	일 정	비고
29일(월)	13:00~14:00	60	점심식사	
	14:00~17:00	180	견학	농촌관광 선진지 (남이섬, 김유정 문학촌, 신장절공묘역 등)
	17:00~18:00	60	저녁식사	
	18:00~22:00	240	간담회	농업·농촌 현장여론
30일(화)	07:00~08:00	60	아침식사	
	08:00~11:00	180	견학	신금영 회원 농가 (춘천 방울토마토&토마토 수출작목반)

2. 주요 내용

1)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이진수: 강원도는 올해도 많이 가물다. 전에는 50m의 관정을 뚫었는데 이제는 100m는 시공을 해야 물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물을 관리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 유영조: 뚫기가 너무 어렵는데 무굴착관배수 시설이 있다고 한다.
- 심호섭: 소형 저수지가 필요하다. 이번에 장마 대비로 대용량 스프링클러를

- 받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다.
- 최무열: 지금 관수사업이 농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산림사업에도 관수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도라지, 더덕, 산마늘을 파종했는데 말라 죽었다. 겨울에 눈이 안 와서 얼어 죽고 가물어서 죽었다. 강릉 같은 경우는 큰 저수지는 많은데 작은 저수지가 없다. 작은 저수지가 지역마다 필요하다.
 - 박현근: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뭄이 심하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물이 안 나온다. 대책이 필요하다.
 - 최학지: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다. 산업인력으로 외국인 고용을 해야한다.
 - 이진수: 우리 동네에 8가구가 살고 있는데 농촌 입구가 여전히 비포장 도로이다. 이유는 산림청 땅이라서 아스콘 시공을 허락하지 않아 비포장이다. 그런데 얼마 전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을 갔는데 전 구역이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어떻게 주민들의 진입도로는 보존을 위해서 허용을 안 하고 휴양림의 산속에는 포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 박현근: 우리 농장 진입도로가 현황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없다. 산림청에서 사용허가도 안 해주고 있어 사용이 어렵다. 전에 장관님과 면담 기회가 있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인의 땅이 아닌 경우 허용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회답이 없다.
 - 박정숙: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올해 일손을 못 구해서 찢찢 매던 중에 소개로 중국사람 3명을 구해 일을 했다. 밥을 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은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왔던 중국인들이 3개월 관광비자로 왔다고 하는데 단기 비자로 오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으면 한다.
 - 신금영: 정식으로 산업연수생을 받아서 인력을 대고 있다. 4명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해 현재는 2명이 일하고 있다. 최저시급제 때문에 이들도 우리나라 임금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있으며, 1년을 채우면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연수생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임금을 더 준다고 하

면 바로 옮긴다. 연수생들은 3년 동안 3번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한다. 일전에 홍콩에 수출로 잠시 나갔는데 CCTV를 보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와서 보니 일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 이진수: 최저임금법으로 임금정책이 농촌을 망하는데 일조했다. 노동임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유영조: 임금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건비가 넘는다. 자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 이진수: 마늘을 구입했는데 너무 싸다. 20kg에 19000원을 주었는데 가격이 너무 낮다.
- 최무열: 중국 현지에서는 20kg이 600원인데 한국에서 중국산을 12,600원에 팔고 있다.
- 심호섭: 여름 채소 값이 안 오른다. 여름 채소가 올라서 그나마 도움이 되었는데 올해는 안 오른다. 식부 면적 조정과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
- 송인숙: 농약병이나 비닐을 판매처에게 강력하게 수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심호섭: 눈에 보면 농약병, 소주병 등을 막 버린다.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 최무열: 산을 타고 골짜기로 들어가면 냉장고들 엄청난 쓰레기가 있다. 이런 것은 신고해서 제조회사가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 박현근: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집안의 정리도 들어가야 한다. 집안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데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심호섭: 농업인의 기준이 300평인데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이 기준으로 인해서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가 있다. 보조 등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다. 농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높이고 진짜 농업인은 기초연금 등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직불금이 환경보존에 대한 직불금도 확대되어야 한다.
- 최무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등록체가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 일원

화해서 농업인 직불금 제도를 양성화해서 농업인의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박정숙: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국 여성농업인과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한여농은 농업이 주업이고 생활개선회는 도시인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생활개선회가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 센터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조사업 등도 생활개선회 중심이다. 차라리 보조금을 기술센터 등에서 지급하지 말고 보조금만 담당하는 농업회의소를 만들었으면 한다.
- 송인숙: 일전에 식품가공기능사 공부를 하는데 기술센터에 과정이 없었다. 전통주 만들기, 이바지 음식 만들기 과정이 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들을 수가 없었다. 농사짓는 나는 밭에서 일할 시간인데,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육을 무료로 받고 있다. 농업인을 위한 시간 배정이 필요하다.
- 최학지: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식품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어떤 병에는 어떤 농산물이 좋은지를 체계화해서 자료 구축을 했으면 한다.
- 이진수: 보조금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벌통 100통이나 2통이나 똑같이 받고 있다.

2) 신금영 회원 농가 ‘춘천 방울토마토&토마토 수출작목반’ 견학

- 지난 2010년에 토마토 재배와 토양관리, 병해충관리, 경영관리 등 분야별 30년 이상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5명이 함께 ‘춘천 방울토마토&토마토 수출작목반’을 구성하였고, 신금영 회원은 작목반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 춘천 토마토는 강원도 특유의 지리적 조건으로 일교차가 심한 산간지역이라 당도와 색깔이 우수하고 특유한 맛이 나 인기가 많다.
- 이곳에서 생산된 토마토의 대부분은 일본 급식으로 수출되고 있다. 일본으로 수출한 지 10여 년이 되어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일본 무역심리가 악화되면서 계약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일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기존 생산한 수톤의 물량을 폐기 처분했다.

- 수출 물량이 국내 시장에 납품되면 공급 과다로 인한 국내 토마토 가격변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일본 이외 수출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콩, 대만 등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으며, 철저한 고품질·고급화 전략을 통해 병해충 방제, 수확 후 관리,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입체적 수출전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이모저모

